

형태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풋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형태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김밥'은 김과 밥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소금'은 소와 금으로 쪼개면 뜻이 사라져요. '먹었다'는 세 조각이고 '잡히었다'는 네 조각입니다.

말을 끝까지 쪼개면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 조각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 단어가 되는가. 이 책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책만의 성격 — 두 개의 기준을 겹치는 공부

서문에서 **문법은 온통 기준**이라고 했죠. 이 책이 그 말이 가장 크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떤 뜻을 가졌는가(실질/형식), 다른 하나는 혼자 설 수 있는가(자립/의존).

각각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둘을 겹칠 때** 생겨요.

기준이 둘이니 칸이 넷 나와야 하는데,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서 이 책의 규칙이 전부 나옵니다.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0 ~ 0.6	형태소 — 말을 쪼개는 법
0.7 ~ 0.9	단어 — 조각이 다시 모이는 법
1	의미 — 단어들의 관계 · 사전 읽는 법 · 관용어

0.8 접사가 가장 두껍습니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각각 스무 종 가까이 실었고, 영어 접사(re- , -er , under-)로 감을 잡은 뒤 한국어로 넘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새 단어를 만들고 있는 살아 있는 접사(-러 , -팔이 , -족)까지 넣었습니다.

★ 문법 공부를 지배하는 세 가지 — 기준 · 정의 · 예시

이 책만이 아니라 문법 전체가 이 셋으로 굴러갑니다. 먼저 이걸 잡고 가세요.

① 기준 — 어떻게 가르느냐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자음과 모음이 갈리는 것도, 체언과 용언이 갈리는 것도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무엇으로 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같은 단어도 재는 자를 바꾸면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② 정의 — 한 글자도 흘리지 말고 정확히

정의를 대충 읽으면 예외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간 —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 — 어간 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어간 받침", "어미 앞에서" — 이 말들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닭고기**는 [닥꼬기]입니다. 뒤의 '고기'는 어미가 아니라 **체언**이니까요.

③ 예시 — 어떤 예로 배우느냐가 이해의 절반

같은 개념인데 예시를 잘못 고르면 평생 헤맬니다.

어근과 어간의 차이를 배울 때 '먹다 / 먹히다'로 배우면 잘 안 잡힙니다. 접미사가 뒤에 붙어 경계가 흐릿하거든요. 그런데 '밟다 / 짓밟다'로 배우면 **접두사가 앞에서 잘려** 한눈에 보입니다.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데 오래 걸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 문제가 안 풀릴 때 이 셋을 차례로 점검하세요.

① 지금 무슨 기준으로 재고 있나 → ② 정의를 정확히 읽었나 → ③ 더 선명한 예가 있나

고비는 어디인가

어간입니다. 딱 하나예요.

두 기준으로 재면 대부분은 나란히 갑니다. '하늘'은 자립이면서 실질, '-다'는 의존이면서 형식이죠. 그런데 **어간만 어긋납니다**. 뜻은 분명히 있는데(실질) 혼자서는 못 씁니다(의존).

이 책에서 틀리는 문제의 대부분이 어간 하나 때문입니다. 0.3에서 어간을 확실히 잡고 0.4로 넘어가세요.

이 책의 열쇠 단계

0.3 어간과 어미입니다. 1권 음운 편의 0.7과 정확히 같은 역할이에요.

0.2에서 두 기준을 각각 배우되 겹치지는 않습니다. 0.3에서 어간이라는 열쇠를 받고, **0.4에서 두 기준을 겹칩니다**. 그때 빈칸이 드러나요.

앞 권·다음 권과의 관계

1권 0.5에서 "혼자서는 뜻을 갖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서만 사는 것"이라고만 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0.7에서 이름을 뒀고요. **그 정체를 여기서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0.6에서 다루다 만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림'에서 앞뒤 '그림'의 **품사가 무엇이냐**는 문제인데, 그건 **3권 품사·용언 편**에서 마무리합니다.

1권을 안 보셨어도 됩니다. 어간·어미는 0.3에서 처음부터 다시 세웁니다.

0 문법은 온통 '기준'이다

START

땅 파기

무엇을 지을지 도면부터 펼칩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화장실 앞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문이 두 개예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여기서 여러분을 가른 기준은 **성별**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으로 갈리고,

집에 가면 부모와 자식으로 갈리죠.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고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소리 하나에 이름이 세 개

자음 ㄱ 하나를 놓고 기준을 세 번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ㄱ은 무엇이 되나
어디서 막느냐	여린입천장소리
어떻게 막느냐	파열음
얼마나 세냐	예사소리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동시에 파열음이면서 동시에 예사소리입니다. 셋 다 맞습니다. 모순이 아니예요. 기준이 세 개니까 이름도 세 개인 겁니다.

모음도 똑같습니다. ㅏ를 보세요.

기준	나는
입 모양이 변하느냐	단모음
혀가 앞이나 뒤냐	후설모음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저모음
어감이 밝으냐 어두우냐	양성모음

'양성모음·음성모음'은 앞의 셋과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혀나 입술이 아니라 **느낌**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충강충'은 밝고, '깁충깁충'은 무겁게 들립니다.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의 절반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의 상당수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잘못 골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 "혼자 못 쓰니까 실질 형태소가 아닙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입니다.

실질이나 형식이나를 묻는데, 자립이나 의존이나로 답한 거예요.

성별을 물었는데 직업으로 답한 것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기준을 두 개 만들고, 그 둘을 겹쳐보는 것.

두 기준을 겹치면 칸이 네 개 생겨야 하는데,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칸에서 이 단원의 규칙이 전부 나와요.

확인문제 0

1.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2. 'ㄱ'이 가진 세 가지 이름과, 각각 어떤 기준으로 본 것인지 쓰세요.
3. '양성모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요?
4. "'먹-'은 혼자 못 쓰니까 실질 형태소가 아니다"라는 답이 틀린 이유는?

START CLEAR

문법은 온통 '기준'이다

다음 01 ·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남은 것 10 / 10

0.1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벽돌 한 장이 무엇인지 봅시다. 더 못 쪼개는 최소 단위입니다.

미뤄둬주세요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3에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형태소(形態素)에서 素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입니다. 원소(元素), 산소(酸素)의 그 素입니다.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두 조건이 동시에 걸립니다.

뜻이 있어야 하고, 그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판별법 — 쪼갰을 때 뜻이 살아남는가

소금을 쪼개봅시다. '소'와 '금'으로요.

- 소 → 🐄? 소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 금 → 💰? 이것도 상관 없습니다.

쪼개는 순간 원래 뜻이 사라졌죠.

그러니 '소금'은 더 못 쪼갭니다. 형태소 하나예요.

이번엔 김밥을 쪼개봅시다.

- 김 → 바다에서 나는 그 김 ✓
- 밥 → 먹는 그 밥 ✓

둘 다 뜻이 살아 있고, 합친 뜻과도 통합니다.

형태소 둘이구요.

쪼갰을 때 뜻이 죽으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예시 — 형태소 하나짜리

하늘 · 바다 · 나무 · 구름 · 사람 · 소금 · 무지개 · 도토리 · 아버지 · 사랑 · 보리 · 미나리 · 매우 · 아주 · 새 · 어머니

'무지개'를 '무지'와 '개'로 쪼개면 뜻이 사라집니다.

'도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시 — 형태소 둘 이상

단어	쪼개면	개수
김밥	김 + 밥	2
손목	손 + 목	2
밤낮	밤 + 낮	2
눈물	눈 + 물	2
논밭	논 + 밭	2
책가방	책 + 가방	2
첫사랑	첫 + 사랑	2
산딸기	산 + 딸기	2
돌다리	돌 + 다리	2
손가락질	손 + 가락 + 질	3
코웃음	코 + 웃- + -음	3

★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 '뜻'의 범위

'뜻'이라고 하면 보통 **사전에 실릴 만한 의미**를 떠올리죠.

하늘, 먹다, 예쁘다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하늘**이** 푸르다.

하늘**을** 봤다.

'이'와 '을'을 빼면 문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이것들에도 뜻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다릅니다.

- '이' → "이게 주인공(주어)입니다"
- '을' → "이게 대상(목적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역할을 지정하는** 뜻입니다.

이런 걸 **문법적 의미**라고 해요.

형태소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 — 사물·동작·상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짐.

문법적 의미 — 관계·기능.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 역할이 있음.

둘 다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어미도 형태소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0.2에서 만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용언 쪼개기

동사·형용사는 조금 복잡합니다.

하나씩 보죠.

단어	쪼개면	개수
먹다	먹- + -다	2
먹었다	먹- + -었- + -다	3
먹었겠다	먹- + -었- + -겠- + -다	4
잡hi었다	잡- + -hi- + -었- + -다	4
예뻤다	예쁘- + -었- + -다	3
가셨습니다	가- + -시- + -었- + -습니다	4

'-었-'은 **과거**, '-겠-'은 **추측**, '-시-'는 **높임**, '-hi-'는 **당함(피동)**.

각각 뜻을 담고 있죠.

전부 문법적 의미입니다.

■ '먹-'의 정체는 아직 미릅니다

'먹-'은 분명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쓸 수 없어요.

이 조합이 이 책에서 가장 큰 말썽을 일으킵니다.

정식 이름(어간)은 0.3에서, 왜 말썽인지는 0.4에서 다룹니다.

■ 확인문제 0.1

1. 형태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세요.
2. '소금'이 형태소 하나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3. 형태소 개수를 쓰세요. 눈물[] · 무지개[] · 책가방[] · 손가락질[] · 코웃음[]
4. '먹었겠다'와 '가셨습니다'를 형태소로 쪼개세요.
5. 조사 '이/가'도 형태소인 이유는?
6. 형태소의 '뜻' 두 종류를 쓰세요.

STAGE 01 CLEAR

형태소 —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다음 02 · 두 개의 기준

남은 것 9 / 10

0.2 두 개의 기준

재는 도구를 둘 준비합니다. 아직 겹쳐 쓰지는 않습니다.

미뤄둬주세요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4에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각을 따로** 배워요.

겹치는 건 0.4에서 합니다.

첫 번째 기준 — 실질이나 형식이나

0.1 끝에서 뜻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걸 기준으로 만듭니다.

실질 형태소 — 실질적 의미. 사물·동작·상태.

형식 형태소 — 문법적 의미. 관계·기능. (= **문법 형태소**)

판별법 —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 형태소만 떼어놓고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는지** 보세요.

- **하늘** → 파란 게 떠오름 ✓ → **실질**
- **먹-** → 뭔가 씹는 장면이 떠오름 ✓ → **실질**
- **예쁘-** → 느낌이 떠오름 ✓ → **실질**
- **이/가** → 아무것도 안 떠오름 × → **형식**
- **-었-** → 그림은 없지만 "지나간 일"이라는 표시 → **형식**

실질 형태소

갈래	예
명사	하늘 · 바다 · 사람 · 학교 · 소금 · 사랑 · 나무 · 책
대명사	나 · 너 · 우리 · 이것 · 거기 · 무엇
수사	하나 · 둘 · 첫째 · 열
동사 어간	먹- · 잡- · 가- · 보- · 읽- · 웃- · 달리-
형용사 어간	예쁘- · 높- · 붉- · 차- · 깊- · 넓-
관형사	새 · 헌 · 온갖 · 모든 · 첫 · 여러
부사	매우 · 아주 · 빨리 · 잘 · 다시 · 결코
감탄사	어머 · 아이고 · 야 · 응 · 어휴

형식 형태소

갈래	예
조사	이/가 · 을/를 · 은/는 · 에 · 에서 · 도 · 만 · 부터 · 까지 · 의
어미	-다 · -고 · -어 · -으면 · -지만 · -는구나 · -어서 · -도록
선어말어미	-었- · -겠- · -시- · -더- · -느-
접두사	헛- · 맨- · 꽃- · 덧- · 되- · 개- · 군- · 짓-
접미사	-님 · -들 · -개 · -이 · -음 · -하- · -답- · -질 · -꾼

★ 함정 — 접사는 뜻이 있어 보이는데요?

'헛수고'의 '헛-'은 쓸데없다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되돌리다'의 '되-'도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그럼 실질 형태소일까요.

아닙니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기준은 혼자서 뜻이 서느냐입니다.

'헛-'은 "헛."이라고만 하면 아무 말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말에 얹혀야 뜻이 생겨요.

스스로 서는 뜻이 아니라, 남의 뜻을 물들이는 것이죠.

실질 = 뜻을 가진 것

형식 = 뜻을 바꾸거나 이어주는 것

두 번째 기준 — 자립이나 의존이나

이번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뜻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느냐를 봐요.

자립 형태소 — 혼자서도 말이 됨

의존 형태소 — 반드시 다른 것에 붙어야 함

판별법 — 이것만 말해도 말이 되는가

그 형태소 하나만 던져보세요.

대화가 되면 자립, 안 되면 의존입니다.

- "하늘." → 통합니다 ✓ → **자립**
- "이." → 안 됩니다 × → **의존**
- "먹." → 안 됩니다 × → **의존**
- "매우." → 어색하지만 말은 됩니다 ✓ → **자립**

자립 형태소

갈래	예
명사	하늘 · 바다 · 사람 · 학교 · 밥
대명사	나 · 너 · 우리 · 이것
수사	하나 · 둘 · 셋
관형사	새 · 흰 · 온갖 · 모든
부사	매우 · 아주 · 빨리 · 잘
감탄사	어머 · 아이고 · 야

의존 형태소

갈래	예
조사	이/가 · 을/를 · 은/는 · 에 · 도
어미	-다 · -고 · -어 · -으면
접사	헛- · 맨- · -개 · -음 · -하-
어간	먹- · 잡- · 예쁘- · 높-

★ 표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조사·어미·접사가 의존인 건 당연합니다. 형식 형태소니까요.

그런데 어간이 왜 여기 있죠.

'먹-'은 앞에서 **실질 형태소**라고 했죠. 먹는다는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존 형태소** 칸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 첫 번째 기준(뜻)으로 보면 → **실질**
- 두 번째 기준(자립)으로 보면 → **의존**

0단계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같은 것이 기준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ㄱ'이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이었던 것처럼요.

▮ 여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두 기준을 겹치면 칸이 **네 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워보면 **한 칸이 안 채워져요.**

그 빈칸에서 이 단원의 규칙이 나옵니다.

겹치는 작업은 **0.4**에서 합니다. 그 전에 **0.3**에서 '어간'의 정체를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확인문제 0.2

1. 두 기준이 각각 무엇을 보는지 쓰세요.
2. 실질과 형식으로 나누세요.
하늘 · 이 · 먹- · -었- · 매우 · 헛- · 어머 · -다
3. 자립과 의존으로 나누세요.
바다 · 을 · 잡- · 아주 · -으면 · 어머 · 맨- · 하나
4. '헛-'에 뜻이 있는데도 형식 형태소인 이유는?
5. '먹-'이 실질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의존 형태소인 것은 모순인가요?
6. '나는 밥을 먹었다'에서 형식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를 각각 찾으세요.

STAGE 02 CLEAR

두 개의 기준

다음 03 · 어간과 어미 — 열쇠

남은 것 8 / 10

인출 ① 두 개의 기준 — 아직 겹치지 마세요

5분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만든 기준은 **두 개**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보는 기준인지, 어느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려보세요. **아직 두 기준을 겹치지 마세요.** 그건 0.4에서 합니다.

힌트 — 각 기준마다 **어느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예를 세 개씩 달아보세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 |
|---|--|
| ☐ 형태소의 정의 (두 조건) 0.1 | ☐ 형식 형태소 갈래 다섯 0.2 |
| ☐ '소금'이 형태소 하나인 이유 0.1 | ☐ '헛-'이 형식 형태소인 이유 0.2 |
| ☐ 형태소가 가진 '뜻'의 두 종류 0.1 | ☐ 두 번째 기준이 보는 것 · 판별법 0.2 |
| ☐ 첫 번째 기준이 보는 것 · 판별법 0.2 | ☐ 자립 형태소 갈래 여섯 0.2 |
| ☐ 실질 형태소 갈래 여덟 0.2 | ☐ '먹-'이 두 기준에서 엇갈리는 이유 0.2 |

0.3 어간과 어미 — 열쇠

전선을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 단계를 여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회수 앞에서 비워둔 1가지를 여기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0.2에서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0.4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분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구만 챙기고 갑니다.

(1권 음운 편을 보신 분은 복습입니다. 안 보셨어도 여기서 처음부터 세웁니다.)

용언 — 모양이 변하는 말

용언(用言)에서 用은 쓰임입니다. 상황에 따라 **쓰이는 모양이 달라지는 말**입니다.

반대말과 같이 보면 확실합니다.

체언(體言)의 體는 몸통입니다.

몸통은 그대로 있죠. '사과'는 어디에 놓아도 '사과'니까요.

용언 = 동사 + 형용사 (모양이 변함)

체언 = 명사 + 대명사 + 수사 (모양이 안 변함)

활용 — 살아 움직이며 쓰인다

활용(活用)에서 活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활어(活魚)의 그 活입니다. 죽은 생선은 뻗뻗하지만 산 생선은 펄떡이죠.

용언이 문장 속에서 **모양을 바꿔가며 쓰이는 것**, 그게 활용입니다.

먹다, 먹고, 먹자, 먹어, 먹지만, 먹으면, 먹으면서, 먹을수록, 먹는구나 ...

아홉 번 모양이 바뀌었는데, 자세히 보면 **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이요.

어간과 어미 — 줄기와 꼬리

어간(語幹) — 幹은 **줄기**. 나무 줄기는 흔들리지 않죠.

→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먹-)

어미(語尾) — 尾는 **꼬리**.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리죠.

→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다, -고, -어 ...)

외울 게 없습니다.

줄기는 박혀 있고, 꼬리는 흔들린다.

그게 전부예요.

찾는 법 — 여러 개 늘어놓고 겹치는 부분

활용해보면	겹치는 부분 = 어간
먹다 · 먹고 · 먹어 · 먹으면	먹-
잡다 · 잡고 · 잡아 · 잡으면	잡-
가다 · 가고 · 가서 · 가면	가-
높다 · 높고 · 높아 · 높으면	높-
예쁘다 · 예쁘고 · 예뻐 · 예쁘면	예쁘-
잡히다 · 잡히고 · 잡혀 · 잡히면	잡히-
사랑하다 · 사랑하고 · 사랑해 · 사랑하면	사랑하-

마지막 두 줄을 보세요.

'잡히-', '사랑하-' 전체가 어간입니다.

접사가 붙어도, 그 덩어리가 통째로 안 변하면 어간이거든요.

★ 어간이 특별한 이유

어간은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집니다.

- ① 뜻이 있습니다. '먹-'은 eat이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 **실질**
- ② 혼자 못 씹니다. "먹."은 말이 안 됩니다. → **의존**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 '하늘' — 뜻도 있고 혼자도 됩니다. (실질 + 자립)
- '-다' — 뜻은 문법적이고 혼자 안 됩니다. (형식 + 의존)
- '먹-' — 뜻은 실질인데 혼자 안 됩니다. (실질 + 의존) ← **여기만 어긋남**

어간은 두 기준이 엇갈리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이야기입니다.

확인문제 0.3

1. 용언과 체언을 한자 뜻으로 구별해 설명하세요.
2. '활용'의活用은 무슨 뜻인가요?
3. '읽다'를 다섯 가지로 활용하고 어간을 찾으세요.
4. '먹이다'의 어간은 '먹-'인가요 '먹이-'인가요? 활용시켜 확인하세요.
5. 어간이 가진 두 성질을 각각 어떤 기준으로 본 것인지 함께 쓰세요.

STAGE 03 CLEAR

어간과 어미 — 열쇠

다음 04 · 두 기준을 겹치다

남은 것 7 / 10

0.4 두 기준을 겹치다

★★★★★

CHAPTER 04 / 10

기둥 세우기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두 도구를 겹치자 빈칸이 드러납니다.

회수 앞에서 비워둔 1가지를 여기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0.2에서 두 기준을 만들었고, 0.3에서 어간이라는 열쇠를 쟁겼습니다. **이제 겹칩니다.**

네 칸을 채워봅시다

기준이 둘이니 칸은 넷이어야 합니다.

하나씩 채워보세요.

	자립	의존
실질	하늘 · 사람 · 매우 · 새 · 어머니	어간 (먹- · 잡- · 예쁘-)
형식	???	조사 · 어미 · 접사

세 칸은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가 안 채워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문법적 의미만 가지면서 혼자 설 수 있는 것.

조사. 혼자 못 씁니다.

어미. 못 씁니다.

접사. 못 씁니다.

자립 + 형식 = 존재하지 않습니다

■ 왜 비어 있을까요 — 우연이 아닙니다

이 칸은 어쩌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빌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죠.

불을 상대가 없으면, 나타낼 관계도 없습니다.

'이/가'는 "이게 주어다"라고 말하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가리킬 대상 없이 '이'만 덩령 있으면 **무엇이 주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는 혼자 있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없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 방향 — 이 단계의 핵심

이 빈칸 하나에서 규칙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립이면 → 반드시 실질이다

형식이면 → 반드시 의존이다

왜 그런지 표를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 **자립 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세요. 아래(형식)가 비어 있죠. 그러니 자립인 것은 무조건 위(실질)입니다.
- **형식 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보세요. 왼쪽(자립)이 비어 있죠. 그러니 형식인 것은 무조건 오른쪽(의존)입니다.

같은 빈칸을 세로로 읽으면 첫 번째, 가로로 읽으면 두 번째입니다. 규칙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 ★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험이 노리는 자리입니다.

실질이면 → 자립이다? × 틀렸습니다.

의존이면 → 형식이다? × 틀렸습니다.

둘 다 '어간' 하나 때문에 깨집니다.

'먹-'은 실질인데 자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존인데 형식이 아니고요.

어간은 이 표의 유일한 반례입니다.

방향	성립?	왜
자립 → 실질	○	자립+형식 칸이 비어서
실질 → 자립	×	어간이 반례
형식 → 의존	○	자립+형식 칸이 비어서
의존 → 형식	×	어간이 반례

💡 외울 게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왼쪽 아래 칸이 비어 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화살표 네 개가 여기서 전부 나옵니다. 표를 그릴 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예시로 확인

형태소	자립?	실질?	방향 확인
하늘	자립	실질	자립 → 실질 ○
매우	자립	실질	자립 → 실질 ○
이/가	의존	형식	형식 → 의존 ○
-다	의존	형식	형식 → 의존 ○
헛-	의존	형식	형식 → 의존 ○
먹-	의존	실질	실질 → 자립 × / 의존 → 형식 ×

어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표에서 문제는 어간 하나예요.
실전 요령은 이렇습니다.

형태소를 만나면 먼저 물으세요. "이거 용언의 어간인가?"

어간이면 → 실질 + 의존

어간이 아니면 → 자립과 실질이, 의존과 형식이 나란히 갑니다.

확인문제 0.4

1. 네 칸 표를 그리고 각 칸에 예를 두 개씩 넣으세요.
2. 어느 칸이 비어 있나요? 왜 비어 있는지 설명하세요.
3. 다음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ㄱ. 자립이면 실질이다 ㄴ. 실질이면 자립이다
ㄷ. 형식이면 의존이다 ㄹ. 의존이면 형식이다
4. ㄴ과 ㄹ이 틀리는 공통된 반례는 무엇인가요?
5. '자립 → 실질'과 '형식 → 의존'이 사실 같은 말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6. '예쁘-'를 두 기준으로 각각 판정하세요.

STAGE 04 CLEAR

두 기준을 겹치다

다음 05 · 형태소 분석 실전

남은 것 6 / 10

아래 네 개의 말을 **표로 배치**하세요. 칸이 넷 나옵니다. 각 칸에 예를 넣어보고, **안 채워지는 칸**을 찾으세요. 찾았으면 그 빈칸에서 **화살표**를 그리세요.

힌트 — 빈칸에서 화살표가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 그랬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네 칸 표를 그리고 각 칸에 예 넣기 **0.4**
 - ☐ 어느 칸이 비어 있는가 **0.4**
 - ☐ 왜 비어 있는가 (원리로 설명) **0.4**
 - ☐ 자립 → ? 방향 **0.4**
 - ☐ 형식 → ? 방향 **0.4**
 - ☐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유일한 반례 **0.4**
 - ☐ 두 화살표가 사실 같은 말인 이유 **0.4**
 - ☐ 어간의 두 성질 **0.3**
 - ☐ 용언과 체언의 한자 뜻 **0.3**
 - ☐ 어간 찾는 법 **0.3**

0.5 형태소 분석 실전

지은 것을 직접 재봅니다. 실제 문장을 쪼갭니다.

미뤄둠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6에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론은 0.4로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 문장을 쪼갤 차례고요.

순서를 지키면 안 틀립니다.

- ① 띄어쓰기 단위로 자른다
- ② 조사를 떼어낸다
- ③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가른다
- ④ 접사가 있으면 떼어낸다
- ⑤ 각각에 두 기준을 적용한다

표는 가로로 읽으세요. 문장이 흘러가는 순서 그대로 쪼개고 그 아래에 판정을 붙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문장이 그대로 복원됩니다.

운동주, 「서시」

문학 작품으로 연습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됩니다.

문법도 잡히고, 작품도 정확히 읽게 되거든요.

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늘	을	우러르-	-어	한	점	부끄럼	이	없-	-기	를
갈래	명사	조사	어간	어미	관형사	명사	명사	조사	어간	어미	조사
자립·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자립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 11개. 자립 4개, 실질 6개 → 어간 2개(우러르-, 없-). 계산이 맞습니다.

'우러러'는 '우러르- + -어'입니다. '우러르다'를 활용시켜보면 우러르고·우러르니·우러러 — '우러르-'가 남죠.

▮ '부끄럼'과 '없기'를 눈여겨보세요

부끄럼 — 원래 '부끄럽다'라는 형용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사**예요.

없기 — '없다'라는 형용사인데 '-기'가 붙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용사**입니다.

둘 다 용언에 뭔가 붙어 명사처럼 됐는데, 하나는 품사가 바뀌었고 하나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가 **0.6의 전부**입니다.

②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앞새	에	일-	-는	바람	에	도	나	는
갈래	명사	조사	어간	어미	명사	조사	조사	대명사	조사
자립·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실질	형식

	괴로워하-	-었-	-다
갈래	어간	선어말	어미
자립·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 12개.

'이는'은 '일- + -는'입니다. '일다'는 생겨나다·일어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활용하면 일고·일면·이는 — ㄹ이 탈락해 '이는'이 됩니다.

'-는'은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뒤의 '바람'을 꾸미고 있죠.

③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	을	노래하-	-는	마음	으로	모든
갈래	명사	조사	어간	어미	명사	조사	관형사
자립·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죽-	-어	가-	-는	것	을	사랑하-	-어야지
갈래	어간	어미	어간(보조)	어미	명사	조사	어간	어미
자립·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태소 15개.

'죽어가는'이 네 조각입니다. 죽- + -어 + 가- + -는. '가-'는 혼자 뜻을 다 하지 않고 앞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 용언이에요.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앞에 꾸미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명사이므로 자립 형태소로 봅니다.

④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	에	도	별	이	바람	에	스치우-	-는다
갈래	명사	명사	조사	조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어간	어미
자립·의존	자립	자립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실질	형식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태소 10개. 자립 4개(오늘·밤·별·바람), 실질 5개 → 어간 1개. 계산이 맞습니다.

이 행은 조사가 넷입니다. 명사가 많은 문장은 조사도 많아져요.

다른 시로 더 해봅시다

㉟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김소월, 「진달래꽃」

	나	보-	-기	가	역겹-	-어	가-	-시-	-르	때	에	는
갈래	대명사	어간	어미	조사	어간	어미	어간	선어말	어미	명사	조사	조사
자립·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실질	형식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 12개. 자립 2개, 실질 5개 → 어간 3개.

'역겨워'는 '역겹- + -어'입니다. ㅂ이 사라지고 '워'가 됐죠. 이런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어간은 여전히 '역겹-'입니다.

▮ '보기'를 눈여겨보세요

'보기'에는 주격 조사 '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명사일까요?

아닙니다. 앞에 '나'를 데리고 있잖아요. 나를 보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여전히 동사입니다.

서시의 '없기'와 같은 경우예요. → 0.6에서 정리합니다.

㊦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아아	사랑하-	-는	나	의	님	은	가-	-았-	-습니다
갈래	감탄사	어간	어미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어간	선어말	어미
자립·의존	자립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 10개. 자립 3개, 실질 5개 → 어간 2개.

'아아'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혼자서도 말이 되니 자립 형태소예요. 그리고 뜻이 있으니 실질입니다.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나'를 '님'을 꾸미는 말로 만들어줍니다.

⑦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김소월, 「먼 후일」

	멀-	-ㄴ	훗날	당신	이	찾-	-으시-	-면
갈래	어간	어미	명사	대명사	조사	어간	선어말	어미
자립·의존	의존	의존	자립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형식	실질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태소 8개. 자립 2개, 실질 4개 → 어간 2개.

'먼'을 관형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새', '헌' 같은 것들과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활용시켜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멀다 · 멀고 · 멀어 · 먼.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관형사는 절대 모양이 안 변합니다.

'새'는 언제나 '새'예요.

그러니 '먼'은 '멀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입니다. 멀- + -ㄴ.

💡 자립보다 실질이 항상 많거나 같습니다.

자립이면 반드시 실질이니깐요(0.4). 자립인 것은 전부 실질 쪽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어간까지 실질에 더해지니 실질이 자립보다 많아집니다.

어간의 개수 = 실질 개수 - 자립 개수

확인문제 0.5

1. '꽃이 예쁘다'를 형태소로 나누고 각각 두 기준으로 판정하세요.
2. '동생이 책을 읽었다'의 형태소 개수는?
3. 「서시」 ④행에서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개수를 세고, 어간이 몇 개인지 계산하세요.
4. '죽어가는'이 몇 개의 형태소로 쪼개지는지, 각각 무엇인지 쓰세요.
5. '이는'의 어간을 찾고, 왜 '이-'가 아니라 '일-'인지 설명하세요.
6. 어떤 문장의 자립 형태소가 3개, 실질 형태소가 5개라면 어간은 몇 개인가요?

STAGE 05 CLEAR

형태소 분석 실전

다음	06 · 같은 'ㅁ', 다른 정체
----	--------------------

남은 것	5 / 10
------	--------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빈칸을 찾았으니 이제 단어로 갑니다

CHAPTER 06	같은 'ㅁ', 다른 정체
CHAPTER 07	단어 — 어근과 접사, 합성어와 파생어
CHAPTER 08	접사의 두 얼굴 — 한정과 지배
CHAPTER 09	합성어 정밀화
CHAPTER 10	단어의 의미

여기까지가 **형태소**입니다. 두 기준을 겹쳐 빈칸 하나를 찾았습니다.

뒤부터는 그 조각들이 **다시 모여 단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근과 접사, 합성어와 파생어, 그리고 '그림을 그림' 문제.

CHAPTER 08의 **지배 접사**가 이 책의 물건입니다.

접사 하나가 문장 구조를 바꾸는 장면이고, 4권 피동·사동으로 이어집니다.

전체 122쪽 · 정답과 해설 · 백지 인출 페이지

